

주간 충현

십자가로 풍성한 이웃 사랑 실천 다음 주일(20일), 장애인 주일



주님은 우리 교회에 5대 목표를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신 5대 목표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한 교회의 움직임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위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빌 3:20)

특히 장애인들을 향한 이웃 사랑의 실천은 구체적입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주님의 자녀입니다.(창 5:1) 따라서 이들에게도 복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눅 19:10) 지적장애인을 위한 '사랑부'(주일 오전 11시, 충현복지관 B1층)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예바다부'(주일 오전 9시·오후 1시, 제2교육관 1층)는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현복지관'에서는 평일에 장애인들을 위해 십자가로 풍성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충현복지관은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지역사회 재할기관으로, 지적장

에·자폐성장애인의 평생복지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현복지관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더욱 든든합니다.(고전 3:11) 장애인 주일이기에 때문에 갖는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호칭(용어) 사용하기

잘못된 표현	올바른 표현	잘못된 표현	올바른 표현
병신, 불구자, 장애인	▶ 장애인	정릉발이, 앉은뱅이	▶ 지적장애인(하지장애)
장님, 봉사, 소경	▶ 맹인(시각장애인)	곱수, 곱사	▶ 청추장애인
귀머리, 병어리	▶ 농아인(청각장애인)	난쟁이	▶ 외소증장애인
정신병자, 정신질환	▶ 정신장애인	문둥병자	▶ 나병인(한센씨병)
정신박약, 저능아	▶ 지적장애인		

말씀과 삶 ②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행하시는가! (빌립보서 1:3~6)

빌립보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설립된 유럽지역 최초의 교회이다. 이같은 은총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였지만 악한 영들은 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빌립보교회를 향하여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의 올바른 행위에 기인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은총으로 배후신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걸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빌 2:5,7) 그런데 실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는 영웅이 되려고만 한다. 자신의 열심, 노력,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며 심지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일이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다.(마 4:17)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원하신다. 천국의 복음, 역사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한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요 1:12) 오직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바로 나의 삶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은 좋은 일을 하기

를 원하신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조금의 선함도 찾을 수 없는 죄인 중의 죄인이다.(롬 3:9~13) 십자가를 빼놓으면 결코 '의'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이처럼 죄에 철저히 묶여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곧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자신이 무가치하며 자신이 세운 모든 계획들도 진실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사 64:6)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롬 6:23)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요 3:16)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삶에 배후신 놀라운 기적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요 17:10)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자. 우리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은 좋은 일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 1:6)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빌 2:13)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쳐야 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빌 3:20) 보혈의 능력과 은총은 썩은 우리들의 찌든 몸을 예수님 같은 영광의 몸의 형태로 변케 하신다.(빌 3:21)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3)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빌립보교회를 흔들었던 악한 영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욱 심령에 깊이 새기자.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리지,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하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이다. 나를 용서하시소서" 이때 우리는 참 자유와 감사로 충만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아멘.

RELIGIOUS INQUEST

(13) Now as they observed the confidence of Peter and John and understood that they were uneducated and untrained men, they were amazed, and began to recognize them as having been with Jesus.

(14) And seeing the man who had been healed standing with them, they had nothing to say in reply.

(Acts 4:13~14)

The top religious officials, men who dedicated their lives to study Scripture and work for God, were troubled over Peter and John's ministry. Acts 4:2 tells us that the priests, captain of the temple guard, and the Sadducees came up to them "being greatly disturbed because they were teaching the people and proclaiming in Jesus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On their way into the temple, Peter and John encountered a disabled man begging for alms. Peter said to the man, "I do not possess silver and gold, but what I do have I giv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Nazarene-walk!" (Acts 3:6) When the man in his forties, "who had been lame from his mother's womb" (Acts 3:2), walked into the temple with Peter and John, the people of Israel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Peter and John took this opportunity to preach the gospel and about five thousand men came to believe the message (v. 4), which is what really perturbed the religious officials. Since it was already evening, the religious officials "laid hands on them and put them in jail until the next day." (v. 3)

"On the next day, their rulers and elders and scribes were gathered together in Jerusalem; and Annas the high priest was there, and Caiaphas and John and Alexander, and all who were of high-priestly descent." (vv. 5~6) Everyone with religious significance was there to inquire about Peter and John's healing of a sick man. They placed them in the center of their gathering and asked them, "By what power, or in what name, have you done this?" (v. 7) Peter,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aid to them, "let it be known to all of you and to all the people of Israel, that by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Nazarene, whom you crucified, whom God raised from the dead—by this name this man stands here before you in good health. 'He is the stone which was rejected by you, the builders, but which became the chief corner stone. 'An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that has be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vv. 10~12) In his answer to the high officials, Peter actually placed them on trial, but the religious officials did not understand and continued their inquest. What did the religious leaders find out?

The religious leaders discovered that Peter and John were unusually daring. They observed their confidence. (v. 13) The religious leaders were the men who had Jesus crucified. They hated Jesus and had the power to persecute, imprison, and execute His followers. Standing firm for the gospel seemed like folly in front of them. Even worse, converting five thousand of their congregation members placed Peter and John in dire jeopard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eligious officials marveled at their boldness. They were surprised by Peter and John's actions and could not understand them. As a Christian, I know that you proclaim Jesus Christ as your Savior inside this church, but I am wondering if you are brave on the outside. Will you stand up for Jesus when things appear dark?

The religious leaders ascertained that Peter and John had not received formal training. They knew them to be "uneducated and untrained men." (v. 13) Some of the world's most powerful preachers were viewed as

unlearned. Their critics concluded that they were ignorant, which is why they raised more and more questions. They could not understand how these dumb men could be so dynamic. They could not understand how these uneducated teachers could be so discerning. Jesus Christ picks-up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He touches the educated and the uneducated, the demon possessed and the self-possessed, the skeptics and the seekers. He changes all the disabled hearts that come to Him in faith.

The religious leaders finally recognized that Peter and John had been with Jesus Christ. (v. 13) Their question was answered, "and seeing the man who had been healed standing with them, they had nothing to say in reply." (v. 14) They knew God's hand was with Peter and John. They knew something divine had happened. Something went on that transcended human ability. These unprepared ones had become great preachers. These untaught men had become effective teachers. There was only one conclusion and that was that these men had been with Jesus. Even so, the religious leaders still went against them. They confessed in private, "What shall we do with these men? For the fact that a noteworthy miracle has taken place through them is apparent to all who live in Jerusalem, and we cannot deny it." (v. 16)

The Apostle Paul clearly addressed God's secret in his letter to the Corinthians. He wrote, "For the word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For it is written, 'I will destroy the wisdom of the wise, and the cleverness of the clever I will set aside.' Where is the wise man? Where is the scribe? Where is the debater of this age? Has not God made foolish the wisdom of the world? For since in the wisdom of God the world through its wisdom did not come to know God, God was well-pleased through the foolishness of the message preached to save those who believe. For indeed Jews ask for signs and Greeks search for wisdom; but we preach Christ crucified, to Jews a stumbling block and to Gentiles foolishness, but to those who are the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Because the foolishness of God is wiser than men, and the weakness of God is stronger than men. For consider your calling, brethren, that there were not many wise according to the flesh, not many mighty, not many noble; but God has chosen the foolish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wise, and God has chosen the weak things of the world to shame the things which are strong, and the base things of the world and the despised God has chosen, the things that are not, so that He may nullify the things that are, so that no man may boast before God. But by His doing you are in Christ Jesus, who became to us wisdom from God, and righteousness and sanctification, and redemption, so that, just as it is written, 'Let him who boasts, boast in the Lord.'" (1 Cor. 1:18~31)

My dear friend, God often uses the uneducated and untrained for His glory. He will use you and me if we surrender all to Him. Please do not look at yourself and get depressed, but look to Jesus Christ and completely submit yourself to His care. Amen. 🙏

종교인들의 연구

⁽¹³⁾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¹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도행전 4:13~14)



김성관 목사

교회 종교관원들, 소위 율법을 연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생애를 바쳤다고 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사도행전 4:2은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와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구걸하고 있던 한 병자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 3:6) “나면서 못 걷게 된”(행 3:2) 사심 새 기강의 이 남자가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걸어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고, 이때 믿게 된 남자의 수가 오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4절) 이 사건은 종교관원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종교관원들은 두 사도를 잡았습니다. 곧바로 그들을 심문하려고 했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기로 했습니다.(3절)

종교인들의 연구가 시작되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이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5~6절) 주요 종교 인사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고친 일에 대해 심문하기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를 한가운데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7절)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로 말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10~12절) 사실상 베드로는 이러한 대담을 통해서 그들을 고소한 셈이었지만 종교관원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심문을 계속했습니다. 심문을 통해 종교관원들이 알아낸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종교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에 놀라다

종교관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뜻밖에 매우 담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확신에 찬 두 사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13절) 종교관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박해하거나 감금하고 심지어 처형까지 할 수 있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복음을 주장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던지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천 명의 개종자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처지는 더욱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당대히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의 모습이 종교관원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진실로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다

종교관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13절)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들 중에 교육용 제도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관원들은 사도들이 무식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무식한 사람들이 그러한 설득력 있는 말을 하게

되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육용 제도로 받지 못한 그들이 어떻게 그런 통찰력을 갖게 되었는지 종교관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은 교육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귀신 들렸든지 정상적이든지, 무신론자든지 구도자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어루만지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병든 영혼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종교인들의 연구결과

마침내 종교관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13절) 그들은 두 사도의 대답을 들었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졌습니다.(14절) 종교관원들은 하나님의 손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곧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교육도 받지 못한 그들이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관원들은 여전히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교관원들도 비공식적으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16절)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단순 명료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고전 1:18~3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무식하고 혼란되지 않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항복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도 사용케 하시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돌보심에 맡기십시오. 아멘.

말씀과 기도 ②

주님의 백성을 위한
그의 기도

(요한복음 17:9-26)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 담겨 있다. 이 중 17장이 더 귀한 것은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꼭 필요한 죄인들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부탁하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의 보호를 부탁하는 기도이다.(요 17:11)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에 세상을 따르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세상과 껴싸며 마귀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멸절 중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딤후 1:12 ; 유 :24)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보호를 부탁하는 기도이다.

그들로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위한 기도이다.(요 17:13)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실 때 기쁨은 넘친다.(행 5:4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을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형이상학적인 것이 되서는 안 된다.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재(reality)해야 한다.(요일 1:3~4 ; 요 15:11)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영원한 기쁨을 구하는 기도이다.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승리를 위한 기도이다.(요 17:15 ; 마 6:13) '악에 빠지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다.(요일 2:16) 마귀는 신자들을 끊임없이 악에 빠지도록 미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을 때 악한 자가 우리를 감히 만질 수도 없다.(요일 5:18)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요일 3:8)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이다.

거룩함에 있도록 예수님의 기도는 거룩함에 있도록 구하는 기도이다.(요 17:17~19) 거룩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고전 6:20)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과 영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고후 7:1)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아야 한다. 말씀과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거룩함에 있도록 구하는 기도이다.

그들을 통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다.(요 17:20)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능히 전할 수 있다.(요 10:16) 왜 그런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다.

서로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위한 기도이다.(마 5:16)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요 17:21,22)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함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3) 진실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가 된다.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한 기도이다.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도는 영원한 영광을 위한 기도이다.(요 17:24)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요일 3:2~3 ; 고후 4:17) 삶의 모든 대답은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딤후 2:5)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다.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기도이다.

주님의 백성은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다. 이 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신다.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보혈의 은총으로 거룩케 되고, 하나 되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자.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오직 믿음으로
섬기는 재정위원회

김광남(장로, 재정위원장)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재정위원회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주일마다 정성을 다하여 수납하고 기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마 10:38) 주일 아침 8시에 경건의 시간을 시작으로 찬양예배 시간 전까지 교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재정위원들과 실행위원들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의 일꾼들은 팀을 구성하여 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

교헌금, 월정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각종 계절헌금을 수납하여 정성을 다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정위원회 일꾼들은 교회의 방패와 성막(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마 16:24)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다짐하면서,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조금의 오차와 실수가 없도록 매순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고후 9:7) 헌금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즉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현충교회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교회 5대 목표인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이루는데 헌금이 사용됨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 다. 재정위원회의 구성원들은 헌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주님이 주신 귀한 소명임을 깨달아 바쁘고도 충실하게 관리하고, 교회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성스러운 물질이므로 모든 수납행정이 주님 앞에서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정확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재정위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을 회계부 계서관에 게시해 놓고 이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대상 29:14)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재물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관리하려고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항상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시하여 헌금을 정성껏 드리기보다는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십일조(말 3:10)를 도둑질하는 일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썼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시니라"(마 6:19) 재정위원회를 섬기는 제회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맡기신 헌금 수납행정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진한 예수님의 사랑

대학부 3팀



✱ 두 청년과 아주머니 한 분이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고 계셨다. 인사를 마치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느냐?”고 물었더니 아주머니께서 한사코 우리를 집안으로 이끄셨다. 맞잡은 아주머니의 손이 너무 거칠고 닳아 있어 어릴 적 어머니의 손과 같았으나 알고 보니 나이가 나와 동갑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드리는데 순간 눈물이 앞을 막았다. 아주머니는 영접기도까지 잘 마치고 다시 한번 전도지를 읽었는데, 두 눈에는 이슬이 고여 있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진한 것이었다. (최계영)

✱ 군에서 전역을 하고 학교공부와 취업준비를 쫓아다니며 선교를 하지 못했다. 주님은 선교를 이루는 왜곡된 내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2008년 첫 CMTC 훈련을 받으며 선교를 준비했고,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였다. (이태훈)

✱ 87세의 나이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내가 가르쳐 드리기에도 전에 전도지의 그림을 보고 손을 모으며 영접기도를 하셨던 할머니. 그의 모습을 통해 진실로 전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임을 보게 하셨다. 또한 사역 중에 몇 날은 차를 빌릴 수 없어 자전거를 타

고 구불구불한 산 속을 다니는 고생도 했지만,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양하은)

✱ 선교가기 전에 들던 바와는 달리 선교사역을 별 위험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선교지의 영혼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였다. 심지어 사역기간 중 몇 번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기도 했었다. 마지막 사역 날만 공안의 단속으로 약간의 위험을 겪을 뻔했지만 운전기사의 재치로 별 탈 없이 지나갔다. (이호재)

✱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마음속에 ‘짧은 몇 문장을 배워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생겼다. 또한 선교지의 영혼뿐 아니라 같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팀원들도

차 사람으로 섬기기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도 보게 하셨다. 그렇게 나의 나약함과 죄된 본성들을 보게 되면서 주님은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백성열)

✱ 우리 팀은 차를 타고 사역을 나가기도 했지만 자전거를 타고 사역을 나가기도 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했지만 팀원들이 밝은 그 껍달 하나하나가 주님이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향하는 것 같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글을 읽지 못하시던 할머니. 집에 십자가 모양을 새겨 넣은 교회 같은 집에 사시던 아주머니. 말씀을 전하는 내내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복음을 받아들이던 가족…….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의 모습은 각기 다른 모습이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부린 그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우리는 돌아왔다. (허 림)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1일(화) - 4월 9일(수)	20교구 6지역	이근호

이번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14일(월) - 4월 22일(화)	19교구 3지역	유승열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

“선생님 힘들어요요,” “저 사람들이 우리말을 알아 듣지 못하냐 봐요. 우리 발음이 잘못 됐나 봐요.” “선생님, 다리 아파요!” 아직 초등학교생 티를 벗지 못한 채 중등1부에 올라온 어린 학생들이라 낯선 환경에서의 첫 사역이 많이 힘든 모양이다. ‘첫날인데 벌써부터 힘들어 하니 어떻게 하죠? 주님, 도와 주세요.’ 속으로 기도하며 학생들을 격려하며 인적 드문 마을로 걸어 들어갔다. 께 약발에 심한 먼지 속을 힘없이 걸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리코더 연주소리가 들렸다. (예수 사랑하심은)이었다. 아이들이 소리쳤다. “와! 예수 사랑하심은이다!” 우리는 그 찬양소리를 따라 마치 흥린 댕 찾아가었다. 어느 작은 집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찬송가를 불러 놓고 리코더를 연주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준비해 간 찬양곡집을 소녀에게 건네 주고 율동을 가르쳐 주는 사이 그 집 주변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조금 전의 피곤한 모습은 사라지고 기쁘고 즐겁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많은 어린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찬송가를 외우며 따라하는 것을 보고 우리 학생들은 힘을 얻었고, 이후 사역 내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혹시 언약한 어린 학생들이 힘들고 낙심될까 봐 주님이 그곳에 미리 가서서 우리가 가장 자신 있게 준비한 현저한 찬양을 어린 소녀를 통해 리코더로 연주하게 하셨음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폭이 베풀었다. 떠나려는 우리의 차량을 예의주시고 손을 흔들던 그곳의 어린 영혼들 사이로 주님도 함께 웃고 계신 것 같아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기쁨이 충전되었다.

윤숙희(교사, 동등부 2팀)

나를 보내신 목적

이런 선교를 통해서 제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서 언제나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내가 세상과 너무 타협을 하고 살았구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내가 있었구나!’를 다시금 정확히 깨닫게 된 기간이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부인했다면 그리 어렵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기간을 통해서 이런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사역하는 동안에는 메달렸던 나의 마음에 생수를 부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밥 먹는 것과 잘 수 있는 장소,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났던 일들이 하나하나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사역이 끝난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한국에 돌아갈 텐데 이곳에서 부족한 삶을 사용해 주신 것처럼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늘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삶을 살고 한국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친척, 이웃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또한 함께 했던 동역자들 모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순종했기에 우리가 할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배혜진(대학부 2팀, 성지교회)

감 사

이번 선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였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아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의 7명이 한 팀으로 모여 선교지를 밟은 것부터가 저는 정말 놀랐고 신기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가고 싶다고, 보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면 가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만해도 내가 선교에 동참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모든 환경을 열어 주시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지금 해야 할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선교를 가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갈등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처음 주님께 드렸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 뒤로도 주님은 환경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한 마음도 열어 주셨습니다.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내에게는 오직 감사뿐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처음 만난 영혼은 우리의 차를 운전해 주었던 운전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부터 하루하루 사역 때마다 순박한 영혼들의 눈빛을 볼 때에도,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실 때에도, 너무 추위 속에서 오히려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나눌 때에도, 더욱 사람함으로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저를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선교에 동참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윤민지(대학부 2팀, 영원교회)

새로운 시작

작년 12월 우연히 길에서 교회 안내지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내책자는 이전에도 많이 받아 보고 교회에 다니면 좋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들어 보았지만 예전과 달리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나의 어머니도 가족을 위해 애쓰시는 그런 겸손한 분이십니다. 증중으로 쓰러지신 할머니를 7년 동안 집에서 온갖 수발을 다 하신 어머니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1년도 채 되지 않아 몸져 누우셨습니다. 어머니는 편찮으신 할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간호하셨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어머니를 볼 때마다 세상은 참으로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신앙생활을 해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넘게 불교신자였고, 게다가 주위의 적극적인 권도를 접하신 분이 전혀 아니셨기에 이런 말을 듣는 나는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집사님의 친절한 교회 소개와 함께 처음 시작한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미숙하고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자제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고민으로 보는데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후회와 아픔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김정수(성도, 새가축양목부)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월요일 외에는 새벽기도회에 좀처럼 나가지 못했는데, 이번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새벽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사순절 기간 중에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더 큰 부활의 기쁨을 맛보며 신앙생활에 새로운 도전을 받고 소망 중에 더욱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만 들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죄성의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보다는 회개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생각났고, 아기가 치른 시험점수에 더욱 마음이 쓰였고,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기도 전에 피곤한 육이 그려져 나의 마음속에 부활절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 죄인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통해 나의 영혼이 말씀으로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매일 새벽에 주시는 말씀과 찬양 속에 특히, 고난주간 새벽에 주셨던 십자가상의 가시철언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주님의 품을 벗어나 죽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여 주셨으며, 주님께로 공급받는 것으로 살아가야 함을 확인시켜 주셨다. 사순절 새벽기도회 초반에는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고 출근해서도 내내 피곤하여 ‘어서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었으나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끝나갈 즈음에는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새벽마다 동행 했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간증과 믿음의 삶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큰 선물이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옛날 주자 같으신 그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기를 기도드린다.

남종호(안수집사, 17교구)

주님을 묵상하며

창조주로 오신 예수님이
피조물에게 조롱과 핍박
멸시천대를 받으셨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숭중하심으로
가시광 쓰시고 많았으니 십자가를 지셨네
날 위해 오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주여! 저의 능물이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저의 노래가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저의 기도가
이제는 나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무기가 되게 하소서

구자은(집사, 8교구)



십자가! 십자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위임목사님의 말씀이 나의 귀가에 들리지 않아 예배시간 내내 피곤에 지쳐 눈을 감고 상념에 잠기지만 반격하면 죄인이었다.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세요! 복음이 복음이지 깨닫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들려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조금씩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왜 그리 목사님은 십자가만을 강조하실까?’ 축복의 말씀에 익숙해져 있던 나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지만, 그래도 세상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리라 믿었던 어리석은 나에게 주님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셨다.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는 기독교 가르침의 심장이며, 중심이며, 핵심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나에게 목사님은 말씀을 통하여 기독교의 핵심을 깨닫게 해 주셨고, 십자가는 계속하여 자랑하여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금요찬양집회를 통하여 목사님은 생명의 말씀을 눈물로 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송을 부르시는 위임목사님의 얼굴에서 마치 천국이 보이는 것 같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은 죄인인 나의 마음에 한없는 도전을 주었다. 찬송을 부를 때에는 성령충만, 은혜충만한 천국의 잔치요, 주님의 품안에 안기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었다. 겹새마태복음에서 슬퍼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믿지 않는 어머니, 형제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해 주세요!”라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8)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천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전하는 주님의 일꾼 된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종인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다.

황재현(안수집사, 5교구)

교회탐방 사람부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사람부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음의 통로이다. 이들은 비록 장애를 안고 태어났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들이 느끼는 은혜를 공유하자.

사람부는?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부는 여러 장애를 가진 신 분, 특히 지적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중국 장로, 부장)

1989년에 조직된 사람부는 부서 이름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순옥 교사)

사람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복간과 지하 1층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고령한 찬양과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 식당으로 이동해서 국수를 먹습니다. 그리고 함께 와서 성경공부를 하며 복음을 듣습니다. (홍진희 교사)

사람부 자체들과 함께 하는 두 시간은 매우 소중한입니다. 예배가 소중한 것은 당연하고 국수를 먹는 시간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강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김정민 교사)

예배를 통한 은혜는?

찬양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사랑하라,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요. (이윤원, 지적장애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요. (김순영, 지적장애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배가 좋아요. (복명수, 지적장애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주상, 뇌성마비장애인)

장애가 있음에도 넘치는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넘치니깐 기쁘네요. (이동원)

한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이 좋아요. (복명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항상 찬양해요. (김순영) 항상 감사합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예수님을 믿는 지적장애인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심성품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대한 사람과 고귀한 사람들 바로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주상)

지적장애인을 가르치는 일은 어떠한가?

사람부 자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홍진희 교사)

가끔씩 난폭하게 행동하는 지적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지만 순수한 그들의 영혼을 볼 때마다 제가 오해하지 않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정순옥 교사)

찬양을 지도하는 것이 어려울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쉽습니다. 찬양대원들의 순수함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민경나 교사)

사람부 자체들을 볼 때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복음을 깨닫고 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가 이것을 지어놓으셨나니 내가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

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눅 10:21) 이들은 정말 하늘의 복을 소유한 은총의 사람들입니다. (김민지 교사)

몸을 재료로 움직이지 힘든 지적들은 목소리로, 손이 움직이지 못한 지적들은 발로, 머릿 자선이 많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배우는 지적들을 볼 때마다 절로 은혜가 됩니다. (최현희 교사)

처음에 저는 장애우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인가 해 주려고 하였으나 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주님이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정민 교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복명수)

사람부 모든 자체들이 4월 20일 주일3부예배 후에 봉당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또한 주일찬양예배 시에는 특별찬양도 하나씩 드립니다. 장애를 가진 자체들이 드리는 믿음의 찬양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민경나 교사)

지적장애인들이 1:1로 돌보며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많은 성심성품이 필요 합니다. 교사로 많이 지원 바랍니다. (정순옥 교사)

만물이 새롭게 될 마지막 때 다시 만날 사람부 자체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사람부 자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정민 교사)

사람부 자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지녀야. 따라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약점은 오해라 할 것이다. 천국이 이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마냥 "예수님이 좋네"는 그들의 순수함에 십자가의 흔적이 생겼다.

(편견)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원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원도자
577	정윤주	17 청년1부	영효진(17)	598	김종옥	12 청년3부	홍효진(7)
578	박성태	2 청년1부	영효진(4)	599	김성수	14 대학부	남계순(24)
579	홍학진	11 대학부	김소현(12)	600	김영환	11 청년1부	정희숙(11)
580	안상진	10 청년2부	전복호(21)	601	이영자	2 청년2부	장규호(3)
581	석덕진	22 청년2부		602	황정남	13 청년1부	조희순(13)
582	김진미	14 청년2부	김소현(4)	603	최현미	17 청년1부	전은순(13)
583	한소희	14 청년1부	김소현(4)	604	김정희	19 청년3부	이영순(17)
584	한소희	14 청년1부	김소현(4)	605	김하나	19 청년1부	
585	홍지자	10 청년1부	이연진(20)	606	서정환	2 청년2부	
586	황 철	21 청년1부	백영진(14)	607	김영호	12 청년2부	
587	신경호	13 청년1부		608	김다예	1 고동부	이미영(7)
588	신준기	13 청년1부		609	서정호	6 청년2부	김정배(6)
589	삼희환	18 신2부		610	이태국	10 청년2부	신향현(10)
590	이성훈	24 청년2부	김남진(19)	611	최은실	24 고동부	최영숙(24)
591	박희환	24 청년2부	김남진(19)	612	신현서	9 고동부	
592	안성경	9 고동2부		613	이후민	18 신2부	홍순희(24)
593	홍지경	9 청년1부	조미재(1)	614	유수자	6 청년3부	김정희(9)
594	김희정	16 청년2부	이윤진(2)	615	최영준	11 신2부	박영민(11)
595	김영준	11 청년3부	박영민(11)	616	정현진	11 청년3부	박영민(11)
596	정현진	16 청년2부	이윤진(2)	617	이희아	17 청년3부	박영민(25)
597	김유미	1 대학부	이유미(7)				

※ 출현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구역장 영성훈련에 집중합시다!

권사회 월례회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부예배 후에 교구별로 구역장 영성훈련을 합니다. 교구의 기초는 구역이며 그 구역을 삼길 핵심 일꾼이 구역장입니다. 따라서 수요일부예배 후에 모이는 교구별 구역장 영성훈련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역들이 중복되어 부득이하게 영성훈련에 불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권사회 월례회로 인하여 권사님들이 종종 빠지게 됩니다. 이에 교회는 권사회 월례회의 시간 변경과 수요일에 진행 중인 모든 교육과 찬양대 연습시간을 조금씩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요일 구역장 영성훈련에 모든 분들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인 만큼 조금씩 시간을 조율하여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한 수요일 구역장 영성훈련이 되길 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골 2:2)

권사회 월례회 시간 변경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2:40~13:20(40분간) 1·2·3·4 지회 연합 월례회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교육 및 찬양대 연습

출현전도대원 훈련 13:40~14:40

호신사 찬양대 연습 12:40~13:20

수요성경공부 14:40~16:10

예루살렘 찬양대 연습 12:10~12:40

